



시애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주보

11700 1st Ave. N.E. Seattle, WA 98125 | 사무실 : 206-362-2278 | 연례회 : 206-334-7050
www.standrewkim.us | Email:standrewkim.us@gmail.com | 발행인 : 김다울 클레멘스
주임신부: 김다울 클레멘스 | 보좌신부: 박윤기 F. 하비에르 | 이 크리스토폴 수녀 | 박 하비에르 수녀



닫힌 문 뒤에 숨어 있던 마음들 위로
부활하신 주님, 조용히 서 계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 한마디에 두려움이 풀리고
상처 난 시간들이 숨을 쉽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는 이들의 길 위에
주님의 자비는 빛처럼 스며들고
의심마저 품으시는 그 손길은
우리의 상처를 부끄러움이 아닌 은총으로 바꾸십니다.

토마스의 손끝이 닿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도 다시 태어나고
닫혀 있던 마음의 문이 조용히 열립니다.

주님,
당신의 자비 안에 머무르게 하소서.

ACA(Annual Catholic Appeal) 2025

ACA는 시애틀 교구장 대주교님의 뜻에 따라 교구에 직접 내는 봉헌금으로 교무금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모든 신자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 교구에서 각 가정으로 우편으로 발송한 인쇄된 원본 ACA 봉투를 사용하십시오.

(기부자의 이름, 기증자의 ACA ID 번호, 주소가 미리 인쇄되어 있음)

● 현금보다는 수표(Check) 또는 신용카드(Credit Card)로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리 인쇄된 원본 봉투를 분실하여 일반 ACA봉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나 기부방법을 봉투에 작성할 때, 온라인으로 기부 하시려 할 때 사무실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대교구에서 발행할 연말 세금 정산 서한(Tax Report)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ACA 봉투에 모든 정보를 작성한 후 교구로 직접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신속합니다.

04/01/2026 기준
본당 목표 금액 - \$ 61,028
현재 기부 금액 - \$ 56,070
현재 참가 인원 - 109명



본당 복음화 일치를 위한 기도

매일 저녁 9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바치고

- + 교회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성모 마리아님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 +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이여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성가 안내

입당 성가: 134 예물 준비 성가: 212, 210 성체 성가: 158, 504 파견 성가: 130

주님 부활 대축일 (4/5)	토요 저녁(7:00)	주일 아침(8:00)	교중(10:00)	청소년(11:30)	청년(5:30)	미사 참례자 합계
미사 참례자	257명	-	535명	-	-	792명



성 빈첸시오 드 폴(2)

(Vincentius de Paul)

1618년 그는 파리에서 제네바(Geneva)의 주교인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Franciscus Salesius, 1월 24일)를 만나 그의 제자가 되었다. 한편 1619년에 성 빈첸시오 드 폴은 공디 백작 부부의 간절한 부탁으로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는 공디 가문에 속한 마을에서 자유롭게 선교 활동하는 것을 조건으로 들어가 1625년까지 전속 신부로 생활했다. 그러면서 백작이 관할하는 갈리선의 죄수들이 받던 비인간적 대우를 개선하고 그들을 위한 병원을 설립하고 영적인 도움을 주었다. 1625년 백작 부인이 선종한 후 그는 시골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노력하며, 그들의 복음화를 위한 '선교 사제회'를 설립하였다. 선교 사제회는 당시 사용하지 않던 나환자 병원인 라자로의 집으로 이사한 후부터 '라자로회'(Lazarists)로 불렸다. 그들은 주로 시골의 농부들을 대상으로 교리를 가르치고 성사를 집전하며 선교 활동을 전개했고,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 본당 단위의 애덕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농번기에는 파리에서 신학을 공부하며 수도 생활에 전념했다.

1625년 말에 성 빈첸시오 드 폴은 남편과 사별한 후 가난한 이들을 위해 봉사하며 살던 성녀 루도비카 드 마리악(Ludovica de Marillac, 3월 15일)을 만나 지도 신부가 되었고, 1629년부터 시골의 애덕회를 방문하고 격려하는 일을 그녀에게 맡겼다. 그는 1632년부터 파리에서 성직자들을 위한 모임을 결성했고, 30년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구호 사업에도 헌신하였다. 1633년 그는 성녀 루도비카 드 마리악의 친구가 된 상류층 부인들의 협조를 받아 '애덕 부인회'를 설립하였다. 그들은 매일 병원을 찾아 환자들을 돌보고 버림받은 아이들을 위한 고아원을 운영하였



다. 그는 계속해서 이러한 봉사를 이어갈 수녀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해 11월 29일 '애덕의 수녀회'(Soeurs de la Charite)를 설립하여 성녀 루도비카 드 마리악을 초대 원장으로 임명하였다. 이 수녀회가 오늘날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사랑의 딸회'(Societas Filiarum Caritatis a S. Vincentio de Paulo)이다. 성 빈첸시오 드 폴은 북아프리카의 그리스도인 노예들을 대속하는 데 힘썼고, 라자로회의 사제 양성을 위한 피정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를 새로운 신학교 설립으로 발전시켰다. 또한 해외에 선교사를 파견하는 것은 물론 프롱드의 난(La Fronde) 때에는 중재 역할을 수행하며 고통받는 희생자를 위한 구호소

도 세웠다. 그는 영적인 저술도 많이 남겼다. 귀족적이고도 충성스러운 성격을 지녔던 성 빈첸시오 드 폴은 가난한 이들 안에서 자신의 성소를 발견하고 인간의 고통과 비참을 경감시키기 위해 자신의 일생을 바쳤다. 그는 또한 가난을 유발하는 구조적 환경을 개선하고 제거하는데 적극성을 보인 탁월한 인본주의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는 1660년 9월 27일 파리에서 선종하여 라자로회 파리 본부에 묻혔는데, 당시에 이미 그가 설립한 라자로회와 수도회는 프랑스를 넘어 영국과 아일랜드 등지에서 활발한 선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는 1729년 8월 13일 교황 베네딕토 13세(Benedictus XIII)에 의해 시복되었고, 1737년 6월 16일 교황 클레멘스 12세(Clemens XII)에 의해 성인품에 올랐다. 그리고 1855년 교황 레오 13세(Leo XIII)에 의하여 모든 자선사업의 수호성인으로 선포되었다.

옛 "로마 순교록"은 성 빈첸시오 드 폴의 축일을 7월 19일에 기념했는데, 이는 그가 선종한 날에 이미 성 고스마(Cosmas)와 성 다미아노(Damianus)의 축일을 지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1969년 로마 보편 전례력 개정과 함께 성 고스마와 성 다미아노의 축일이 9월 26일로 변경되었고, 성 빈첸시오 드 폴의 축일은 그가 선종한 날인 9월 27일 전례 안에서 기념하게 되었다. 2001년 개정 발행되어 2004년 일부 수정 및 추가한 "로마 순교록"도 9월 27일 목록에서 파리에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헌신하며 선교 사제회를 설립하고, 성녀 루도비카 드 마리악과 함께 수녀회인 사랑의 딸회를 설립한 성 빈첸시오 드 폴에 대해 기록하였다. 그는 라틴어로 성 빈첸시우스 아 파울루스(Vincentius a Paulus, 또는 빈첸시오 아 바오로)로도 불린다.

공지 사항

1 미사 안내

● 4/14(화)부터 4/17(금)까지 미사가 없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 Rice Bowl

Rice Bowl을 채워서 성당에 가져오시면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사용될 것입니다. 4/26(주일)까지 기부를 받을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3 견진 오리엔테이션

- 일시 : 4/12(주일) 오후 1:00
- 장소 : 110호실

4 나자렛 모임

- 일시 : 4/12(주일) 오후 1:00
 - 장소 : 친교실
-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5 구역 음식 봉사

- 일시 : 4/19(주일)
- 음식 봉사 : Bellevue 구역
- 메뉴 : 짜장밥

6 시노드 세 번째 모임

- 일시 : 4/19(주일) 오후 1:00
 - 장소 : 성전
 - 주제 : ①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습니까?
②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으로 어떠한 본당 공동체를 만들고 싶습니까?
- 모든 시노드 참가자께서는 각 소그룹별로 세 번째 모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성 김대건 한국학교 교사 모집

- 성 김대건 한국학교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한글 및 한국 문화 교육을 위해 애써 주실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 자격 요건 :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 교육 관련 경력자 환영.
 - 수업 시작 : 금요일 오후 6:30 - 9:00
토요일 오전 9:30 - 12:00
 - 문의 : sakks10@gmail.com

8 2027 세계 청년 대회 확정 신청서

세계 청년 대회는 전 세계 젊은이들이 교황과 함께하는 보편 교회의 큰 행사입니다. 기도, 미사, 교리 교육, 그리고 가톨릭 신앙을 익히는 시간으로, 교회의 보편성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젊은이들이 신앙을 더욱 깊이 하고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증인이 되도록 격려합니다.

관심자 신청서를 작성하신 분들께서는 참석 여부를 결정하여 확정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확정 신청서 시 작 : 4/5/26 (주일)
- 확정 신청서 마감일 : 7/26/26 (주일)
- 문의 : standrewkimworldyouthday@gmail.com 혹은 위원장 이선재 마르티노 justin123yi@gmail.com

9 성당 50주년 기념 기금 안내

50주년 기념행사 및 기념 책자를 발간하기 위한 기금을 모금합니다. 교우 여러분의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입당송
갓난아이처럼 영적이고 순수한 젖을 갈망하여라. 너희는 그 젖으로 자라나 구원을 얻으리라. 알렐루야

제1독서..... 사도 2,42-47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화답송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제2독서 1 베드로 1,3-9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생생한 희망을 주셨습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 알렐루야.

복음 요한 20,19-31
<여드레 뒤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영성체송
네 손을 넣어 못 자국을 확인해 보아라.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알렐루야.

부속가	파스카 그리스도 무죄하신 죽음생명 불사불멸 마리아	희생제물 죄인들을 어린양이 싸움에서 용사께서 말하여라	우리모두 아버지께 양떼들을 참혹하게 다시살아 무엇을	찬미하세 화해시켜 구하셨네 돌아가신 다스리네. 보았는지.	살아나신 목격자 그리스도 너희보다 그리스도 승리하신	주님무덤 천사들과 나의희망 먼저앞서 부활하심 임금님	부활하신 수의염포 죽음에서 갈릴래아 저희군계 자비를	주님영광 난보았네. 부활했네. 가시리라. 믿사오니 베푸소서.
------------	-----------------------------	-------------------------------	------------------------------	---------------------------------	------------------------------	------------------------------	------------------------------	-----------------------------------

우 리 들 의 정 성

[교무금] 이지연 이화수 정부자 이지연 이석돈 이진순 이두순 양미애 탁희선 이순옥 이경태 차상철 오영실 이용남 황성만 장명덕 심진수 서용원 임대근 천기전 정순도 박애령 이장원 Kyungpaik Kim Lawrence Hynes
[교무금 Push Pay] 조성욱 장경화 오영주 정재열 윤법영 강철권 이종일 위미림 최금희 주성택 윤성욱 유승일 박소영
[꽃 봉헌] 김금숙 민들레 성모회 **[감사헌금]** 이명희 정순도 탁희선 Jeong Hee Kim 익명

주일 헌금	교무금	교무금 PUSH PAY	2차헌금(Catholic Relief Services Collection)	꽃 봉헌	감사 헌금
\$6,857.00	\$5,775.00	\$2,323.10	\$348.00	\$400.00	\$210.00

교우 비즈니스 광고

Styles Law/골든 부동산(대표)	CPA, Cho & Assoc. LLC	박영진 부동산	엠마 스킨 케어
변호사 -Jeremiah Styles 케이스 매니저-서역원 마르띠노 206-335-3090	세금보고/상속.증여/회사설립 해외소득.자산보고/투자이민상담(예약) 206-353-6002 조도현 미카엘	고객 평가 1위 Windermere Real Estate 206-833-7979	스킨 마사지, 경락, 점, 검버섯, 타투 G마트 2층(린우드) 425-525-9955
공간 디자인(Interspace Interior)	시애틀 교구 관할 천주교 묘지 (매장땅/납골당) 미리 구입 상담	Pearlshining Photo	퀀텟 용자/부동산
블라인드 시공설치 전문 임정욱 마르세리노 206-669-4922	홀리루드 / 갯세마니 박요안나 206-434-5670	알루미늄 페널 사진, 여권사진, 장수사진 반태성(바오로) 206-883-3080 Lynnwood H-Mart 내	퀀텟 모게지 & 유니버스 부동산 대표 토니 장 (안젤로) 206-719-3502
KCR MEDIA GROUP	24시간 한국방송 &TV	IRA/401(K)	김현숙 부동산
교차로 / 블루북 www.wowseattle.com 대표번호 425-712-1236	실시간 방송 11개 채널 KBS/MBC/SBS/케이블 방송 등 425-777-6667	U & T Financial 김용근(Glen) 바실리오 206-880-1190	Windermere Real Estate 주택/콘도전문 206-375-5959
황바로 바오로 CPA	리나 웰니스 클리닉	안영미 글라라 종합보험	이상휘(스테파노) 부동산
세금/회계/회사설립/감사대행 425-742-7675(린우드 대한부인회 옆) info@phcpallc.com	비만/호르몬 치료 비타민 주사 206-485-3112(최주연 리나)	메디케어/오바마케어 생명보험/ 자동차보험/사업체 보험 425-791-0638/253-778-3974	주택 전문 /John L.Scott 425-770-1212
동서 한의원	New York Life	State Farm(첼시 황보 보험)	블루밍 치과
425-773-7979	은퇴연금/상속계획/연금성보험/단기저축 IRA/401K/Rollover/학자금보험/롱텀케어 김수현 (바울리노) 253-802-2550	자동차, 주택, 생명, 사업보험 22618 Hwy 99 ste. #113 Edmonds 425-329-8396 (부한마켓 옆)	임플란트, 교정, 보철 4215 198thst SW #205 Lynnwood, WA 윤성욱 가브리엘 425-775-1800
아틀라스 척추 의료원 14608 Hwy 99 #309 Lynnwood	강남 한식(구 린우드 한강) 장병돈(미카엘) 503-442-3690	메디아트 패밀리 클리닉	이재호 (베드로 치과)
교통사고 상해, 직장 상해 김진영 요안나 425-742-0332	냉면 - 감자탕 - 순두부 - 도시락 캐터링 - 김치/ 반찬 / 점심배달 19505 44 th Ave. W. Lynnwood	일반 내과, 부인과 진료 425-233-8254 (Bellevue)	임플란트, 레이저치과, 아동치과 206-362-2500 16535 5th Ave. NE Shoreline
정가네 반찬	황명심 데레사, CPA, CFP	굿닥터 카이로프랙틱	그린 리본 프로젝트
반찬, 케더링 전문 206-906-9789 206-372-6481	세금보고, 회계업무 425-373-0380 / 425-802-7999 SabrinaHwang@CPA.com	김병성(프란치스코) 425-775-7550 19514 64th AVE W Suite B Lynnwood	그림을 통해 나를 찾는 과정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수업 213-926-7030(Issaquah)
희망미디어(Hope Media)	New Haven Geriatric Psychiatry	핸디맨	Bridge Tax Services
홈페이지제작/광고/행사/유튜브촬영&편집 집 253-256-1854 Kwom.guhun@gmail.com	노인 정신과 206-657-4829 www.newhaven.care	페인트, 벽지, Hardwood Flooring 206-498-8164 임화식 레오	개인 및 자영업자 세무 회계 전문 CPA 김효진(릿다) 425-243-7423 www.bridge-taxservices.com
웅진 코웨이 USA	뉴 해남 식당	Banji (Korean Speed Dating)	시애틀 풀락 (덕화명란, 간장게장, 시래기)
정수기, 청정기, 비데, 안마의자 렌탈 253-632-0498 토마스 조	11:00 AM~9:30 PM 매주 목요일 휴무 206-367-7843	425-999-1874 김현숙 헬레나 banjiseattle@gmail.com	425-534-9255 www.seattlepollock.com 4215 198th St. SW #204 Lynnwood

미사 시간 및 성사 안내

주일 미사	토요일-7:00(오후), 주일- 8:00(오전), 10:00(오전), 11:30(오전)-YG/주일학교, 5:30(오후)-청년미사		
평일 미사	화 / 목 - 오후 7:00, 수 / 금 -오전 10:00		
성사 안내	봉성체 : 목요일 (4/30/26)	유아세례 : 오후 3시 토요일 (4/18/26)	

2026년 부활 메시지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에서 뵈게 될 것입니다.”(마르 16,7)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사슬을 끊으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폐지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불멸을 환히 보여 주셨습니다.”(2티모 1,10) 이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이때,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전쟁과 긴장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며, 불안 속에 살아가는 이들, 그리고 양심에 따라 살아가려는 모든 이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희망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주간 첫날 새벽, 무덤을 찾은 여인들은 예수님의 몸을 찾지 못하고 당황합니다. 그러나 그때 들려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중심을 이루는 기쁜 소식입니다.

“어찌하여 살아 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찾고 있느냐?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되살아나셨다.”
(루카 24,5-6)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빈 무덤 앞에서 있는 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상처 입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갈등은 계속되고,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은 우리에게 불안과 혼란을 안겨 줍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빈 무덤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통해 죽음이 끝이 아니며, 하느님의 생명이 어떤 어둠도 넘어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희망은 단순한 위로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활의 희망 안에서 ‘생명을 살

리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생명은 우리의 관계 안에서 드러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다시 손을 내미는 자리에서 드러나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고통받고 소외된 이들을 향하며, 우리는 그들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교황 레오 14세께서는 사도적 권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Dilexite)〉에서, 가난한 이들의 상처 입은 얼굴과 무고한 이들의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 자신의 고통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DT 9)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받는 모든 이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연대해야 합니다. 특별히 전쟁과 폭력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겪는 이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부르심은 우리의 일상 안에서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가까이 있는 이들의 아픔에 응답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는 작은 실천 안에서 우리의 신앙은 살아 움직이며, 그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심을 드러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돌보는 책임으로도 이어집니다. 우리는 절제와 배려를 통해 창조를 돌보고 생명을 존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아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안에서도 우리는 인간의 존엄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모든 기술은 인간을 소외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서로를 연결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길을 선택할 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더욱 깊이 함께 하게 됩니다.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과 잃을지 모른다는 걱정 속에서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천사의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에서 뵈게 될 것입니다.” (마르 16,7)

그 ‘거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해를 선택하는 자리, 무관심과 혐오를 넘어 타인의 아픔에 마음을 여는 자리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을 체험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각자의 양심에 따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생명을 살리는 선택으로 하느님의 뜻에 응답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려움에 머물지 않고 다시 일어나,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보여 주신 사랑의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다가오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우리에게 이 부활의 기쁨을 새롭게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2026년 부활 시기를 맞아, 참된 생명의 희망을 마음에 새기고 일상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들과 그 기쁨을 나누며, 은총 안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서로를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천주교 서울대교구장·평양교구장 서리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